

李 雪 子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研究論文

자연이미지를 통해 나타난 회화 표현 연구

- 本人의 作品을 中心으로 -

2004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東洋畫科

金 裕 鎮

논문개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빠른 변화와 함께 극심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과 정보산업이 발달되는 가운데 편리함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중심을 받쳐주는 가치관이 흔들리며 도덕질서의 붕괴, 황금만능주의, 소외의식의 대두 등으로 인간은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인 외로움,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과학문명의 발달 속에 미술양식은 다원적 경향을 띄게 된다.

예술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기를 둘러싼 현실세계와 경험적 관계들이 자기 내부에 살아있는 감각이나 상상력을 동요시켜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표현은 작가의 본능적 충동의 표현이며, 삶의 표현이며, 미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즉 현대회화는 단순히 가시적인 세계의 재현에서 점차적으로 비가시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작가의 내면심리에 의거한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주관적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평범한 사물표현이나 현실 구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며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는데, 이때 갖는 감정이란 대상에 대한 느낌 이상의 것으로 인간과 대상과의 심리적 관계를 파고들어 객관적인 견해를 독창적으로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작가는 삶을 통하여 얻은 참다운 미적 가치를 형상화(形象化) 내지 가시화(可

視化) 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이해, 인식의 방법, 형상화하는 기술과 재료 등의 어려운 난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표현의 방법으로 예술에 대한 사려 깊은 통찰과 창조 정신을 가지고 자유로운 조형적 예술 작품을 제작한다.

인간의 삶과 밀접히 융합되어 있는 예술은 인간의 실존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자아실현의 방식과 더불어 자기 극복의 수단으로서 인간을 존재의 진실성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본 작품 연구에서는 회화에 있어서의 자연이 갖는 의미와 이런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회화 표현의 상징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방법적인 연구에서는 이렇게 이해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드로잉적 요소와 색의 요소를 자유와 연관시켜 언급하면서 내적 충동에 의한 자연스런 표현으로 얻어지는 우연성과 행위적 표현성에 근거해서 '드로잉'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삶을 자연과 자아(自我)가 합일하는 내적 생명질서 자체에 삶의 근원적 측면을 두고 자연에 내재된 영감과 정취로부터 정신의 자유로움을 확대시켜 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회화세계를 창출해 나가하고자 한다. 더불어 존재의 본질을 찾고 삶의 긍정적인 비전으로 접근하여 삶과 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앞으로의 작업 전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본론	3
1. 내용적인 연구	3
1) 회화에 있어서 자연이미지	3
2) 회화표현의 상징성	5
2. 방법적인 연구	9
1) 드로잉적 요소	9
2) 색의 요소	12
III. 작품 분석	15
IV. 결론	35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竹 , 백토 위에 채색, 162×130.3cm, 2003	17
【작품 2】 홀로서기Ⅲ, 백토 위에 채색, 72.8×112cm, 2003	19
【작품 3】 기다림 I, 백토 위에 채색, 91×72.7cm, 2003	21
【작품 4】 흩어져 날리다, 백토 위에 채색, 45×35cm, 2003	23
【작품 5】 기다림Ⅲ, 백토 위에 채색, 35×35cm, 2003	25
【작품 6】 기다림Ⅱ, 백토 위에 채색, 116.7×91cm, 2003	27
【작품 7】 竹- 흔들림, 백토 위에 채색, 91×72.7cm, 2003	29
【작품 8】 홀로서기 I, 백토 위에 채색, 130.3×97cm, 2003	31
【작품 9】 꽃송이, 백토 위에 채색, 80.3×80.3cm, 2003	33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예술은 인간의 가치관, 내면세계를 솔직하고 진실 되게 표현해냄으로써 그것을 보는 감상자와의 교감을 통해 그 시대의 문화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 일상적인 시각을 극복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고 환기시킴으로써 작품화하여 내부의 의미를 외적으로 전달 가능한 여러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써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확인하고 자연의 질서 속에서 생성, 소멸해 가는 생명체이다.

또한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자연물들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독특한 미는 예술활동의 소재로써 이미 폭넓게 선택되어져 왔었다.

본 연구자의 미의식과 예술활동 또한 자연에서 영향을 받으며 자연과 인간과의 공감이 되는 의미의 교합(交合)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예술적 가치가 발현(發現)한다고 생각하며 내면의 세계를 자연이미지를 통해서 작품화함으로써 감상자와 교감코자 하였다.

여기서 나무의 흔들림을 통해 바람의 흔적을 보았다.

스스로의 존재만으로 모습을 보일 수 없지만 다른 대상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바람을 통해 자아(自我), 크게는 인간을 찾을 수 있었다.

예술은 대상에 대해 누구나 느끼게 되는 보편화된 감정이 아닌 자신의 체험을 통한 주관을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생각에서 감정표현이 어떠한 대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작업의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모색해 보는데 본 논문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내면세계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상징적 자연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삶을 되살리고 거기에 진정한 실존적 가치를 부여해 보는 과정을 서술하였으며 이는 혼적 속에서 자신의 존재확인과 진정한 삶의 과정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 내용적인 면과 방법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내용적인 면에서 회화에 있어서 자연이미지와 회화의 상징적 표현에 대해 살펴보고 방법적인 면에서는 드로잉적 요소와 색의 요소로 나누어 작업의 과정이 본 연구에 미치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본인의 작품을 분석해 보고 결론에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회화적 가치관으로 재정립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는데 좋은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II. 본 론

1. 내용적인 연구

1) 회화에 있어서 자연이미지

인간은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으며, 자연을 통해 자아의 존재(存在)와 생명력(生命力)을 확인하고 자연의 질서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생명체로서 근본적으로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¹⁾ 그러므로 예술에 있어 자연은 가장 많은 관심과 관찰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렇듯 인간의 자연에 대한 연구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식의 변천과 함께 계속 되었고 또한 자연은 인간의 조형의지와 미의식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 왔다.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신비함과 질서, 조화를 보며,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되었고, 원시인들은 언어가 있기 전부터 동굴의 벽화나 암각(岩刻)을 통해 인간의 심적 욕구를 낙서와 의미 있는 기호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자연은 모든 예술의 근원으로 그 자체로써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원시적인 순수한 자연미, 인간의 간섭으로 더욱 아름다워진 자연, 인위성을 가미하여 더욱 고조시킨 아름다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세 번째로 가면서 점차 인간의 창조성이 짙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백기수, 『미학』, (서울:서울대출판사), 1978, p.9

인간의 창조성은 단순한 재현(再現)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다시 재창조되는 과정으로 주어진 대상을 자유롭게 미적 대상으로 구체화 되는 것이다. 구체화하는 대상을 관찰하는 것만도 아니고 그 성질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며 어떤 것에 생기(生氣)를 주는 것이다.

창작미가 자연의 미보다 더 정리되고 세련되고 효과적이고 인상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창작된 미는 자연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본원적이고 포용적이며 잠재적이고 감화적인 것은 역시 자연의 미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연은 완전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미(美) 뿐만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더불어 삶의 법칙, 존재의 법칙을 깨닫게 해준다. 끊임없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는 자연이라는 대상 속에 표현하고 싶은 충동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표현은 자연을 보는 시각적 척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연에 끊임없이 접근하여 세밀한 관찰과 그 관찰을 통한 감동을 자기만의 독창적 표현에 의하여 자연 속에 존재하는 특질을 찾아 내어 독창적인 양식으로 형성하는 일인 것이다.

작품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자연세계와 보이지 않는 자연세계의 조화로움 속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세계가 더 깊고 크게 느낄 수가 있었다. 자연의 작은 일부분에서 인간의 존재를 느꼈고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자연과 인간의 흡입된 깊은 관계성인 것이다. 인간은 자연 속에 살고 느끼고 활동하면서 예술적 영감이 자연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며, 또한 삶의 과정과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자연이라는 매체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적용시켜 나갈 때 인간성 삶의 회복과 인간의 공존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자연에 대한 깊은 친화력을 형성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었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자연 대상을 통해 회화를 표현하려는 노력은 자연의 상징

적 형태와 색채에 바탕을 두었다. 바람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들판 위의 풀들이나 곧은 나무, 훑날리는 나뭇잎으로 자연을 상징하였으며 색채 또한 강렬하면서도 인위적이지 않아 자연에 포함될 수 있는 색으로 표현하였다.

인간은 자연을 끈임 없이 탐구하여 체험한 미를 예술이란 형식을 통해 표현한다. 이런 관계로 자연의 미를 추구하는 범위는 무한하며, 항상 새로울 수 있다. 예술은 현실적 재생이 아니라 사물과 어떠한 형태에 자기 나름대로의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적 표현은 인간의 감성적 세계를 중심으로 한 작가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출발하며, 그 체험들은 인식과 관계된다. 결국 체험된 것은 표현이 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 체험이 감성의 독창성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예술로 발전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창조된 자연인 것이다. 자연을 통해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것을 나타내는 재현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을 형상화로 표출함으로써 상징화된 대상의 주제를 가진 형식으로 구체화된 창작이다. 예술의 목적은 미의 창조이며 미를 생산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인간은 이러한 미의 소재나 원리를 자연에서 찾았고 자연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표현해왔으며 자연은 끊임없이 그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예술은 자연의 이상화이며 예술가가 조형적 형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이상의 표현이다. 우리는 자연과 예술 그리고 인간과의 연관성으로 이어지는 필연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회화표현의 상징성

예술은 사고가 아니라 체험을 반영한다. 형태나 색채는 오직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 결합되는 것이며, 이미지는 두뇌가 체험하는 유기적인 삶의 언어 자체로서 감각적 존재의 직접적 표현이 될 수 있다.²⁾ 감성의 전달에 있어서 표현은 강

렬한 자아의 반영, 내재하는 정신의 표출 의미로 인간의 감성과 직접 통한다.

작품성에 나타난 표현성은 작가의 잠재의식의 개입과 상징화 과정을 통해 대상에 미적 형태를 부여한 것으로, 이러한 상징화에 의해 형태 속의 이미지와 불과 분의 관계를 가지며 은유나 상징을 통해 나타난다.

캣시러(Frnst Cassier: 1874-1945)는 예술을 상징적 언어라고 정의하고 인간은 자신을 객관화하고 직관화하여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영혼의 의미를 부여한다³⁾고 하였다. 또한 상징성의 기능을 인간 행위의 목적성과 역사성에 비추어 인간존재의 위치에 대해 충고하였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정의에 대해 그는 인간생활의 여러 형태를 속박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 상징적 동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인간에게 문명의 발자취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속에 예술가에 있어 상징성은 이미지를 암시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예술가들이 표현하려는 정신적 현실은 매우 새롭고 독특한 것이어서 아직 그것을 반영해 보지 못한 언어들 속에서는 그것을 번역할 마땅한 언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창적인 예술작품 안에 내포된 새로움은 쉽게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상징의 기능을 통해서 인간의 심층에 파고드는 힘을 지닌다는 것이다.

즉 상징은 불가시적(不可視的)이고 형이사학적 실재를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가시적인 형(形) 또는 대상을 뜻하는 것이다. 다른 매체들로 포착할 수 없는 현실의 어느 단면,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지시대상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관념에 구체적 외형을 부여함으로써 현상세계가 아닌 불가시적(不可視的) 세계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또한 칼 융은 “예술은 상

2) 르네 위그, 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서울:열화당), 1979, p.12

3) 르네 위그, op. cit, p.217

징이다. 작가가 체험한 것 지각한 것 느낀 것 생각한 것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상징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⁴⁾라고 말했다. 이른바 상징이란 용어는 관습적이고 분명한 의미 이외에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우리에게 숨겨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뜻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현상이 직접 나타내는 분명한 뜻 이외에 어떤 것을 암시한다면 그것은 상징인 것이다.⁵⁾

위와 같이 상징이 주는 어떤 함축적 의미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모든 자연의 사물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인간은 사물이나 어떠한 형태에 자기 나름대로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변형된 상징을 만들어 예술을 표현하고자 한다.⁶⁾

본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상징의 형식을 따라 자연이미지를 통해 자아를, 넓게는 인간의 자아의식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작업의 과정은 자연 이미지를 표현 하는 것 이전에 살아가면서 남겨진 발자취인 것이다. 즉, 흔적을 남기는 작업의 과정은 삶의 과정을 상징한다. 여기에서 상징은 간접적인 형식으로 개인적인 체험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동일한 상징이라 할지라도 작가가 뜻하는 것과 지각자(知覺者)가 받아들이는 뜻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상징의 형식에는 다의성(多義性)과 가변성(可變性)이 포함되어져 있으며 그것은 국민이나 문화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본 작품 속에서는 그것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여 표현하고 또 형식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표현은 감정과 감성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과정 중 누구나 한 두번씩은 겪는 삶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예술가는 감정 자체를 그대로 직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보편적인 관

4) Karl G. jung 저, 조승국 역, 『인간과 상징』, (서울:범조사), 1981, p.126

5) Karl G. jung, Ibid, p.25

6) A. 야페 저, 이희숙 역, 『미술과 상징』, (서울:열화당), 1979, p.15

념을 상징으로 나타내며, 이것은 자연의 내적 생명의 형식과 논리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는 표현성이라는 고유한 형식을 갖게 된다.

삶에 있어서 복잡한 감각과 주관적인 무수한 형식들은 언어적으로 제시될 수 없다. 이 때 작품은 하나의 표현적 형식으로 단순한 감수성으로부터 정교한 지각과 정서까지 표현 할 수 있는 무한성을 내포하는데 이것이 상징의 생명이다.

2. 방법적인 연구

1) 드로잉적 요소

예술 표현은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충동 저항을 계속적으로 시도하여 유기적이고 환경 적인 여러 조건과 다양함이 상호 작용하는 투합의 장으로 내적 충동이 자아내는 일종의 진술(陳述)의 표명(表明)으로 볼 수 있다.

화면 속에서 소재로서 나타나는 여러 요소(점. 선. 면)들은 나열되거나 조합되고 구성되어진다. 요소들을 나열함에 있어서 우연적인 형상들의 크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색감에 변화를 주기도 하며 부분을 지워버리기도 하고 가필하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들은 화면 안의 소재들이 서로 다른 요소들과 조화나 절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이미지로 형성되는데, 그 이미지의 기원이나 의미를 굳이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 이미지는 무언가 깊은 필연성을 가진 '현존'(Presence)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⁷⁾ 따라서 조화나 절충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요소들의 다양한 결합으로 또 다른 특정상황을 연출해 내기 위한 방법적 탐색인 것이다.

이처럼 회화는 선, 형태, 색들이 서로 맞물려 관계를 가지며 부분이 전체에 예속되는 유기적이고도 상호 의존적인 조형적 공간구성이라 할 수 있으며 선은 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점, 색, 면과 함께 중요한 표현양식으로 우리에게 명확성과 동적인 울동 감을 주고 양감이나 입체감까지도 명시해주는 광범위한 표현효과를 지닌다. 즉, 표현을 위한 매우 풍부한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모든 정서나 위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미를 지닌다.⁸⁾

7) 하버트 리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역, (서울:을지문화사), 1977 p.247

8) 데이비스 A 라우어,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서울:미진사), 1985, p.157

선은 그 자체로서도 내용을 함축하고 전달 가능한 독립성을 띠는 조형요소로 비대상 회화의 면, 색채와 더불어 강한 표현매체로 역할한다.

선이 갖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자연현상과 동일시되며 인간 내면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자발성을 갖는 것이다.⁹⁾

선을 긋는다는 행위는 아마도 인간 최초의 표현 행위일 것이다. 기운 생동하는 선 하나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서는 오랜 수련과 수양의 축적이 있어야 하며, 점을 찍고 선을 긋는 그 순간 순간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선을 긋는다는 행위는 인간 내면에 잠재되고 있는 표현 본능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이며 긴장된 절제는 보다 자유로움을 추구하게 된다.

여기에서 선은 대상의 윤곽선을 표현하는 수동적 자세의 선이 아닌 선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능동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원초적이고도 독자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본인의 그림에서 드러나는 주된 조형적 요소는 드로잉인데 드로잉을 통한 행위를 하면서 육체와 정신 속에 자유를 찾으려 하며 희열을 느낀다. 여기서 드로잉 선은 붓에 의한 표현이 아닌 굵기가 다양한 나뭇가지에 의한 선이다. 여러개의 나뭇가지를 이용해 바람을 그렸으며 이 과정 안에 인간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많은 어려움을 다시금 느끼고 그 위에 다른 굵기의 여러 방향의 선들을 표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선들의 간격이 일정 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때론 적게 긋기도, 많이 긋기도 하고 얇은 굵기의 선, 굵은 굵기의 선들 또한 다양한 방향의 선들은 인간의 삶이자 작가의 의지인 것이다.

작업은 곧 자유를 의미하며 그러한 의미는 선긋기의 반복이라는 은유적 형태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나게 되며 선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성격이나 외모, 감성

9) E. B 펠트만, *op. cit*, p.13

(感性)에서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양회화에서 선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보통 덩어리나 면은 넓이를 가진 것이고, 선은 움직임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덩어리나 면을 선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존재형태를 운동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선은 사물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 뿐 만 아니라 선 그 자체가 어떠한 울동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 리듬감을 발생시킨다.

즉 동양회화의 선적양식은 자연의 과학적, 분석적 관찰과는 달리 직관적이고 종합적인 감수성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원근이나 공간질서에 개의치 않고 자연스러운 심리적 효과에 기준을 두고 그려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생생한 모습이 얼마만큼 표현되었나에 중점을 둔다. 대상물을 사의적(寫意)적으로 받아들이고 심리묘사를 중시하여 표현한다. 즉 선은 어떤 사물을 재현하기 위한 공간과 물체를 구분 짓는 경계선이 아니라 드러내고자 하는 존재적 의미와 정신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선(線)적인 요소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두껍거나 가는 혹은 길거나 짧은, 가볍거나 무게 있는 선들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특히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드로잉 적인 선의 사용은 빠르고도 그 나름대로의 깊이 감을 더해준다. 선에서 오는 리듬감, 운동감을 반드시 움직이는 대상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선이 가지는 리듬과 속도, 굵기, 겹침, 방향, 무게 등으로 형태를 파악하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화가는 체험의 한 방식으로 붓과 행위를 통하여 형성된 선의 울동감과 자율성에 의해 생(生)의 역동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화면에서의 선은 작가 자신의 물리적인 힘의 흔적이며, 신체성이 드러남으로

표현된다. 신체운동을 받아 잇는 '연속체'로서의 기능인 선의 본질은 행위나 작용, 즉 신체의 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연속의 개념과 일치하며 화면이 나의 행위나 심리학 작용을 그대로 받아내 주고 있는 하나의 장(場)인 것이다.

하나의 선(線), 형(形)이 갖는 가치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내포하는 생명의 가치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화가는 한층 더 나아가서 암암리에 그 선을 가장 혼한 관습적 형태에 이르기까지 간소화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선을 이번에는 정서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능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외부세계를 수렴하여 자기화 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며 선이나 형은 우리가 막연히 그 중에 잠재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생명관에 의해서만 그 미를 획득하게 된다.

2) 색의 요소

회화에 있어 색은 작품에 생기(生氣)를 불어 넣는 가장 큰 요소로 인간의 정신적 마음을 자극하는 언어의 역할을 상징한다.

색은 다양한 표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자발성과 우연성이 강조되는 분방한 기호적 표현으로 환원되어질 때 독립적 표현성을 획득하고, 중복된 이미지들과 결합에 의해 작가의 내면의 의식적, 무의식적 심층구도가 드러난다.

즉 소재의 수단이라는 의미를 넘어 그 자체의 존재성을 획득하고 화가의 정신적 내면세계를 전달해 주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색지각이 색채의 자율성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에서는 색채 자체가 엮어 내는 효과를 보게되고 그것은 곧 감정의 세계로 이끄는 작용이며 사물의 물체감이나 그 물체감각에 의한 연상과 관계없이 다만 그 색채에 의하여 감정의 고조상태에 달할 때 느끼는 경험, 그 자체의 자율적 세계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색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역학적인 운동성을 말하는데 물리적으로 고정된 색채 위에 시간적, 공간적 작용으로 하나의 색채가 다른 색채에 영향을 줌으로써 산출되는 리듬, 확산, 축소, 원근이 나타나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색은 현실의 구체성을 실현하는 형식이 아닌 주관적 감정의 표현 매체인 것이다.

색채는 시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인간 공통의 언어이며 인간이 느끼고 있는 바를 시각언어으로써 조형예술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상승작용을 돕는 정신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은유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표현하는 사람의 기억관념과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다.¹⁰⁾

또한 회화에 있어서 색채는 작품의 생명력을 주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점, 선, 면 등의 조형언어와 결합하여 비대상적인 인간의 사상과 내적 표현을 시각화하여 공간성을 구체화시키도록 하는 이러한 색채의 정신성을 화면에 도입시켜 작품의 정서를 표현해 보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색은 인간의 상황 속의 심리적 느낌을 상징적으로, 물리적으로 고정된 평면 위에 시간적, 공간적 작용으로 하나의 색채가 다른 색채에 영향을 줌으로써 일종의 리듬(rhythm)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작품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흰색은 아름다움의 모든 가치가 내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으론 침묵과 무(無)와 빛의 색으로 한낮의 느낌이나 밝은 광선의 느낌이며, 이러한 밝은 느낌은 꿈을 꾸는 듯 몽상에 잠긴 상태를 표현하는 속성을 가질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부동성과 함께 침묵하는 적막감을 표현하는 또 다른 색인데 여기 이 상황 속에 다양한 색채는 또 다른 인간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색의 강렬함은 삶의 어려움을 굳세게 이겨 내고자 함을 색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작품 속의 푸른 색은 푸른 바다의 동경을 상징하기도 하며 한편으론 우울함

10) 정미희, 『독일 표현주의』, (서울:일지사), 1990, p.70

을 상징하기도 한다. 여기에 노랑은 작품을 무겁지 않게 해주면서 희망을 상징하여 미래에 대한 열린 마음을 보여준다.

색채는 인간의 정신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심리적 가치의 일반적 특성을 말해 준다. 지각된 대상에 의도하고자 하는 감정을 붙여 넣어주는 역할로 인간 정신을 더욱 자유로운 상상의 공간으로 이끌어 주며, 심상화시키는 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해준다.

색채의 역할은 작위적(作爲的) 동작의 상황과 그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즉 색은 감각의 직접적이고 생명 적인 상징성과 깊은 상상력을 관조자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작 품 분 석

회화의 창작은 외형묘사의 정확성보다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게 된다.

자연 대상을 통한 자아의 상징성을 표현하려는 노력은 자연의 상징적 형태와 색채에 바탕을 두고 순수한 소박함과 예술적인 음향을 추구하는 것에 정점을 두었다.

심적으로 내부에서 울리는 음향, 감수성을 자극하는 정취가 작업을 하는 동안 스스로 흘러나와 화면에서의 적절한 화음을 형성하며, 회화적인 목적으로 다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순간의 감성의 울림은 가장 고조된 상태이며 그 울림이 표출될 때 비로소 자유로움의 정취가 시야에 펼쳐진다. 그 정취는 감정의 흐름을 나타내는 정취인 것이다.

본인에 있어 작업의 과정은 자연이미지를 통해 자아를 표현하는 것 이전에 살아가면서 남겨진 발자취인 것이다. 즉 흔적을 남기는 작업의 과정은 자아의 표현이면서 삶의 과정이다.

작품 제작은 장지 위에 아교반수를 하며 이때 아교의 양이 적으면 백토가 쉽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아교의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을 하는데 한번에 아교포수를 할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작업되어진 것이 아교의 끈기를 더 해준다.

아교포수가 끝나면 백토를 바르게 되는데, 이때에도 아교물과 백토를 혼합하여 백토가 종이에 잘 밀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잘 혼합된 백토를 장지 위에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고루 펴 바른다. 그리고 이 백토가 마르기 전에 여러 가지 굵기의 나뭇가지나 도구를 이용해 화면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속도감 있게 혼

적을 남긴다.

작업의 과정 중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시간에 작품의 대부분이 결정되어 지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아교포수를 해주고 색을 입히게 된다. 다음으로 사포를 이용해 색을 부분적으로 닦아 내는데 이 과정 속에 전에 표현된 드로잉적 선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남겨진 드로잉적 선과 색위에 마무리한다.

작업과정을 통해 끊임없는 자아성찰과 감상된 시각으로 자연을 포함한 삶과 현실을 화면에 투영시키고자 하며 동시에 내면세계를 탐구해 나감으로써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욕구를 시각적 이미지로 언어화 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갖고 창작에 임하고자 한다.



【작품 1】 竹 , 백토 위에 채색, 162×130.3cm, 2003

【작품 1】 竹

- 크 기: 162×130.3cm
- 재 료: 백토 위에 채색
- 제작연도: 2003

자아(自我)의 표현을 작업이라는 과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업의 주제인 자연이미지를 표출해 낸다고 보기 전에 작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흔적을 남기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흔들리는 나무를 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자연의 현상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작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고자 하였다.

화면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람과 자연의 느낌을 최대한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자아(自我)를 찾고자하는 수많은 방황과 상황을 반복되어 가는 선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보이게 표현 하였다.



【작품 2】 홀로서기Ⅲ, 백토 위에 채색, 72.8×112cm, 2003

【작품 2】 홀로서기Ⅲ

- 크 기: 72.8×112cm
- 재 료: 백토 위에 채색
- 제작연도: 2003

흔적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 시공간 속에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태고의 기억과도 같으며 그러한 흔적 속에서 자아를 찾아보고 삶의 형태를 규정지을 수 있게 된다.

이 작품은 자아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으로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곧게 서 있는 나무와 같이 힘든 삶의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바람의 표현으로 많은 드로잉적 선을 처음 사용한 작품이다.

백토를 바른 후에 얇고 가는 여러개의 나뭇가지를 이용해 바람을 그 위에 그었으며, 이 과정 안에 인간의 삶속에서 느껴지는 많은 어려움을 다시금 느끼고 굽은 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그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자 하였다.

백토가 마른 후, 색을 입히고 색이 마른 후 사포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닦아 내어 하얀 백토위에 그었던 삶을 조금씩 보여 주었다.

또한 이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 색이 강력한 편인데 삶의 어려움을 굳세게 이겨내고자 함을 색으로 다시 한번 보여 준다.



【작품 3】 기다림 I, 백토 위에 채색, 91×72.7cm, 2003

【작품 3】 기다림 I

- 크 기: 91×72.7cm
- 재 료: 백토 위에 채색
- 제작연도: 2003

작업의 과정에서 우연적으로 보여 지는 형태나 색의 어울림을 생각하여 지워내고, 다시 칠하는 가운데 보여 지는 느낌에서 인간의 자아의식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런 작업의 과정은 자신이 남겨놓은 발자취라는 말로 대신 표현할 수 있겠다.

장지에 아교포수를 하고 하얀 백토를 바른 후 그 위에 여러 가지 도구로 흔적을 남기는데 여기서 굵기가 다른 나뭇가지는 다양한 선을 표현해 주고 있으며, 그 선의 굵기는 인간의 마음을 대변해 주기도 한다.

우선 얇은 굵기의 나뭇가지 여러 개로 바탕이 될 수 있는 선을 무수히 긋는다. 이 작품에서는 이 과정 속에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때론 거칠 수도 있지만 잔잔하고 평온한 푸른 바다를 상상하며 파랑계열의 색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홀로 서있는 나뭇가지를 그어 무언가를 끈임 없이 갈망하고 기다리는 인간의 마음을 이로써 대신한 것이다.

작업의 과정은 곧 나의 삶이다. 색을 입히고 닦아내는 과정을 통해 작업의지가 표현되어 지는 것이다. 파랑계열의 색으로 푸른 바다의 동경을 상징하며 노랑으로 희망을 표현 하였다.



【작품 4】 흩어져 날리다, 백토 위에 채색, 45×35cm, 2003

【작품 4】 흩어져 날리다

- 크 기: 45×35cm
- 재 료: 백토 위에 채색
- 제작연도: 2003

우연이 가져오는 효과를 필연적으로 이용해서 형태의 발생관계를 상이한 의미 사이에 부여하여 우연성의 필연적인 결과 달성이라 할 수 있으며 기법상의 우연이 단순한 우연에 그치지 않고 필연으로써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추상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색의 배색에서 우러나오는 효과와 붓의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형태로 자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는 곧 인간의 자아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작품에서는 잊을 통해 자유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잎들은 그 어느 것에도 구속 받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이 가고자 하는데로, 날리고자 하는데로 자유로이 흩어져 날리는 것이다.

반복되어 표현되어진 선을 속도감 있게 표현하였으며, 그 위에 흩어져 날리는 나뭇잎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나 또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색채 또한 밝은 옐로우(Yellow)를 써서 무겁지 않게 표현하였으며, 그 위에 붓의 선으로 낙서하듯 그어진 선들은 자연물 위의 또다른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작품 5】 기다림Ⅲ, 백토 위에 채색, 35×35cm, 2003

【작품 5】 기다림Ⅲ

- 크 기: 35×35cm
- 재 료: 백토 위에 채색
- 제작연도: 2003

예술가는 자신의 내부에서 내밀한 생명이 밖으로 표출되고자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은 고동 소리를 먼저 감지하는데 이렇게 오직 작품의 과정과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예술적 감성은 성숙되는 것이다.

내면을 향한 열린 감성, 열린 의지를 지닌 예술적 표현 행위는 시대를 막론하고 지극히 순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작품을 이루어 내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내면세계에 보다 충실히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에 있어 푸른색은 우울함과 희망을 동시에 대변한다.

백토 위에 흔적을 남기고 푸른색 물감을 입힌 후 닦아내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갈망하는 스스로를 느끼며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한다.

닦아내는 과정 속에 다른 작품에 비해 많은 흔적을 남겼으며 이는 나의 꿈에 대한 영상과 생각에 의한 조각들을 무질서하게 늘어놓음으로 해서 조절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본 것이다.



【작품 6】 기다림Ⅱ, 백토 위에 채색, 116.7×91cm, 2003

【작품 6】 기다림 II

- 크 기: 116.7×91cm
- 재 료: 백토 위에 채색
- 제작연도: 2003

색채는 형태와 융화되어 무한한 조화를 이루어내며 색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는 태도는 그것이 주는 감동을 느끼는 것이다. 화면의 표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큼 색채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감각언어라 할 수 있다.

또한 색채는 인간의 감정을 호소하며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다른 예술들이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 표현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정신적인 분위기를 농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보여 지는 색조들은 자연의 형상을 포함한 정서적 감각을 강조하는 수단으로써 또는 미적 감각을 가감 없이 즉흥적으로 표출시키는 방법으로써 사용되었다.

가는 나뭇가지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선들을 화면의 중앙에 배치시켜 화면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으며 수없이 그어진 가로선들에 세로선의 나뭇가지를 거침없이 표현함으로써 어려움 속의 끝은 의지를 표현코자 하였고 여기에 자유로이 여러 곡선들로 많은 부분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보여주는 자주 톤은 앞의 기다림 시리즈와 함께 무언가 갈망하는 인간 안에 희망과 신비감을 표현해 준다.



【작품 7】 竹- 흔들림, 백토 위에 채색, 91×72.7cm, 2003

【작품 7】 竹- 흔들림

- 크 기: 91×72.7cm
- 재 료: 백토 위에 채색
- 제작연도: 2003

이 작품에서도 또한 드로잉적인 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리듬이 형성되어 있는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드로잉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드로잉 작품을 격렬한 신체의 움직임에 수반하여 순식간에 대상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체스처 드로잉(Texture Drawing)'과 천천히 부분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가며 그리는 '컨투어 드로잉(Contour Drawing)' 기법이다. 여기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착상을 순식간에 화면에 표현해 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고요한 연못에서 물이 출렁이는 듯한 잔잔한 떨림과 때로는 속도감이 있는 바람의 모습을 작품에 담고자 하였으며 그것은 붓을 움직이는 속도와 연필선의 움직임과, 사포로 다시 물감을 닦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화면 구성에서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선, 색, 형태에 있어서 서로 간에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갖고 보는 것으로 하여금 리듬을 타고 음악을 감상하듯이 작품을 보고 편안하고 온화한 느낌으로 감상하도록 한 것이다.

질은 베이지 톤으로 온화한 느낌 속에 자유로이 흘날리는 나뭇잎을 표현하고 붓 터치를 다시 남김으로써 자유로운 또 다른 자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8】 홀로서기 I, 백토 위에 채색, 130.3×97cm, 2003

【작품 8】 홀로서기 I

- 크 기: 130.3×97cm
- 재 료: 백토 위에 채색
- 제작연도: 2003

모든 예술작품에 있어서 공간은 화면에 본질적 요구로써 존재하며 일상적인 생활에 불연속성(不連續成)에 대한 경험과 가변성이 있고 포착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시적인 것들에 유동성이 표현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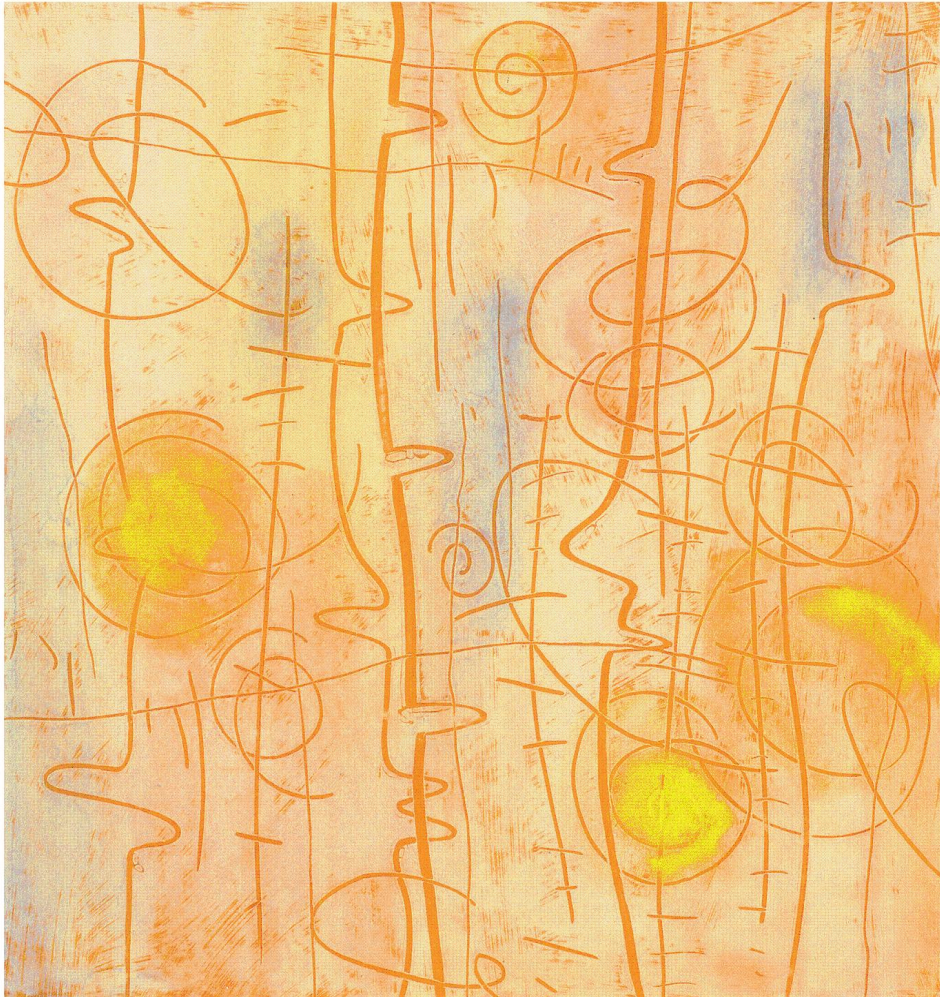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체의 변화를 희망하는데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움직여 나가는 존재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의미한다.

이작품은 곧게 서 있는 나무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변치 않고자 하는 곧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백토 위에 무수히 많은 드로잉 선을 가로로 긋는데, 선에 변화를 주고 간격에 변화를 주어 밀바탕을 만들어 나간다.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선들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의 과정과 그 속의 어려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시간의 흐름을 상징한다.

그 위에 굵기가 다양한 세로선을 내려 그음으로서 삶에 대한 곧은 의지, 그리고 흐르는 시간을 멈추고자 함을 내포한다.



【작품 9】 꽃송이, 백토 위에 채색, 80.3×80.3cm, 2003

【작품 9】 꽃송이

- 크 기: 80.3×80.3cm
- 재 료: 백토 위에 채색
- 제작연도: 2003

형(形)이란 대상을 관찰하는 순간 눈에 와서 닿는 자극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현재 순간의 경험은 결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순간의 경험이란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생애동안에 있어서 무수한 감각 경험 가운데에서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며 그 새로운 이미지는 과거에 지각되었던 형(形)에 대한 기억의 흔적들과 더불어 들어온다. 이러한 형의 흔적들은 상호간의 유사성의 기반 위에서 서로 마주치는데 새 이미지는 이러한 영향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과거의 즐거웠거나 아픈 추억들,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인 현재, 조금은 나아지기를 기대해보는 미래가 엉켜져 있다. 여기서 여러 개의 겹쳐져 있는 선은 자신의 생각 외에 다른 의견을 조율하여 받아들이고자 함을 나타낸 것이다.

자신만의 많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변의 상황을 조금은 단순하고 경쾌하게 받아들이고 들여보자는 데 이유가 있다. 즉 타인을 포함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의 조율을 상징한다. 추운 겨울을 지나 힘겹게 꽃을 피듯이 여러 상황을 잘 견뎌내어 꿈을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기도 하다.

IV. 결 론

예술은 사회적 현실을 통한 형상적 인식과 더불어 창조되며, 이 형상은 직관적으로 보는 이에게 상상력으로 다가가므로 논리적 사고 이전에 감각적, 감성적으로 감동을 주며 과학과 비교해 볼 때 예술만이 전달 될 수 있는 특성이 된다.

여기서 예술의 형상화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 아직 존재한 적이 없는 하나의 리얼리티(Reality)를 세우되 예술은 사회적 현실에 대한 형상적 인식이 되고 예술 작품은 구체적인 형상의 창조물이 된다. 또한 예술작품의 독창성 확립은 일차적으로 자기실현으로부터 출발한다 보며 작가의 체험과 상상 속에서 의식의 빗장을 풀고 순수하게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사물과 일체감을 느끼고 어울릴 때 비로소 작가는 본질에 접근한다고 본다.

본 작업에서는 인간의 실존의 장으로 자연을 실재적 대상을 떠나 인간의 심층적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경험적 공간으로 상징화하였으며 자연이미지의 상징적 표현과 반복되어지는 선들의 행위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작품의 주된 표현이 되고 있고, 이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는 자연은 그 자체로써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창조성과 함께 할 때 진정한 미를 보여주며 이는 존재의 본질과 삶의 법칙을 깨닫게 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술가에 있어 상징성은 이미지를 암시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개인의 체험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동일한 상징이라 할지라도 작가가 뜻하는 것과 지각자가 받아들이는 뜻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예술가는 자기 행동, 감정, 사상 등 모든 것이 매우 섬세한 소재 즉 손으로 만져 볼 수 없지만 치밀한 소재를 형성하며 거기서부터 자기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에 끊임없는 자아성찰(自我省察) 과 감성된 지각으로 자연을 통해 자아(自我) 또는 인간을 화면에 투영시키고자 하며 동시에 내면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로 언어화 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갖고 발전된 회화표현에 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백기수, 미학, 서울대출판사, 1978
- 이 일, 현대미술에서의 환원과 확산, 열화당, 1991,
- 이 일, 현대미술의 시각, 미진사, 1985
- 정미희, 독일 표현주의, 일지사, 1990
- 조요한, 예술철학, 경문사, 1973
- A. 야페 저, 이희숙 역, 미술과 상징, 열화당, 1979
- 데이비스 A 라우어,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미진사, 1985
- 하버트 리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역, 을지문화사, 1977
- Karl G. jung 저, 조승국 역, 인간과 상징, 범조사, 1981
- 루이스 스미스, 임영방 역, 전후 현대미술, 세운문화사, 1975
- R.G.Collingwood, Essays in the philosophy of Art, 조익태 역, 경문사, 1973
- 르네 위그, 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열화당, 1979
- 철학사상 연구회 편, 철학 대사전, 동녘출판사, 1989

논 문

- 김정혜, 추상회화에 있어서 무의식의 표현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97유숙
자, 자연에 나타난 삶의 이미지에 관한 표현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
문, 2001
- 이경애, 자연을 통한 감성적 추상세계,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1

이수은, 회화에 있어서 자재된 이미지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1995

최정윤, 흔적에 내재된 그 집적 현상의 이미지 표현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
문, 2002

현수정, 자연물을 통한 감성적 이미지 표현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2002

ABSTRACT

The Study of Self Symbolism in Nature Image

-Concentrated on my works-

Kim, Yu Jin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e modern society, people are chased after rapid change and severe struggle for existence. We have got the present named as convenience from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this development has brought corruption of morality, mammonism, estrangement shaking the respect for human as well. Furthermore, it makes us suffer from ment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vanity and loneliness.

In this flexible soc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science, the art mode shows many different tendency.

An artist, in every and each times, is under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ircumstance of his time. The reality and experience around artist stimulate the sensibility and imagination lying under

his inner world. It leads him to turn the stimulated sensibility and imagination to the artistic expression, which represents his instinct impulse, life, and aesthetic consciousness.

In the other words, a modern painting has gradually changed from simply imitating the outer world to expressing inner world of artist according to many different kinds of expression ways affected from his self consciousness.

When the subject is expressed, the emotion which the artist taken from it is injected in it. At this point, the emotion of the artist means more than feeling or impression. It is to express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about psychological connection between human and the subject.

Artist should keep his eye on the questions about understanding of subjects, ways of recognition, techniques and materials which are used to present the sense of pure beauty that he has got from his life.

Art related to our life is not able to be considered without human being. That is the reason why it should make human to be reached at the truth of existence as a way of self overcoming and realization.

In this study of art will show u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image and self or human being in terms of psychological point. In addition, we will describe the meaning of symbolization of self through nature and nature itself.

In the methodical study, we will look into the factors of drawing and color in my works relating with freedom based up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Then we will analyze the meaning of 'drawing' according to the expression of action and contingency from the natural expression of inner impulse.

The contemporary life of human being follows the inner life order which is made up the unity of nature and self. Extending from inspiration and mood in nature to freedom of consciousness, I am going to create new type of painting world. Moreover, I am expecting it to affect newly work positively by finding the essence of existence and affirmative vision of life.